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CURRENT ISSUES OF THE CHINESE ECONOMY

2018년 5월 31일 I Vol. 20 No. 4
ISSN 2093-341X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슝안신구(雄安新区) 건설 현황과 1주년 평가

KIEP 북경사무소(ojh@kiep.go.kr, Tel: 86-10-8497-2870)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 례

1. 개요
2. 추진 현황
3. 향후 계획
4.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2018년 3월 31일, 국가급 신구(国家级新区)인 슝안신구(雄安新区) 건설 추진이 본격화된 지 1주년 경과

- 슝안신구는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일대(1,779㎢)의 지역으로 2035년까지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분야를 기반산업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목표

▣ 지난 1년간 슝안신구에 다수의 국유기업 진출 외에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기업이 투자계획을 발표

- 허베이성 내 대학을 통합한 슝안대학을 설립하고 베이징대, 칭화대 등 주요 대학의 기관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할 예정

▣ 슝안신구 개발은 2035년까지 추진되며, 베이징과 인근 주요 도시의 접근성 개선, 도심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

- 슝안신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되며, 향후 중국 내 스마트시티 건설의 시범모델로 삼을 예정
- 슝안신구 내 주력산업은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 △군민융합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의 신산업 업종이며, 양자통신, 블록체인 등이 미래전략산업에 포함

▣ 슝안신구는 개발 과정에서 속도보다 질을 강조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과밀완화에 기여하면서 징진지 지역의 새로운 발전 거점이 될 것임.

- 슝안신구 추진 사업에 대해 대학과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활발한 편
- 도시개발 관련 경험 및 노하우, 정책적 역량이 슝안신구에 총동원되고 있으며, 베이징 중관춘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혁신산업 중심의 과학기술단지 설립 추진
- 슝안신구는 생활권 녹지 비율을 높이고, 도시 문제의 90%를 빅데이터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전망
- 반면, 선전, 항저우(杭州), 샤먼(厦门), 구이양(贵阳) 등 IT산업을 통해 혁신을 추진한 도시들과의 차별성 부족 문제, 정책 드라이브에만 의존하여 목표(세계적 R&D 혁신도시로 발전)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비판도 존재

1. 개요

■ 2018년 3월 31일, 국가급 신구(国家级新区)인 슝안신구(雄安新区) 건설 추진이 본격화된 지 1주년 경과[1)]

- 슝안신구는 허베이성 바오딩시(保定市)의 슝현(雄县), 룽청현(容城县), 안신현(安新县) 일대의 1,779㎢ 규모 지역으로, 2035년까지 자율주행 · 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분야를 기반산업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목표로 함(그림 1 참고).[2)]
- 슝안신구는 1980년대 설립된 선전 특구(深圳特区)와 199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浦东新区)에 이어 세 번째 '전국 단위 국가급 신구'[3)]로 주목받고 있으며, 2017년 4월 국무원 비준 이후 국가 중장기 발전에서 '슝안신구 개발의 전략적 중요성(千年大计, 国家大事)'이 강조됨.

그림 1. 슝안신구 위치 및 인근 주요 도시 분포 현황

자료: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입지 특성] 슝안신구는 베이징, 톈진 및 허베이성 주요 도시와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화베이(华北)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성을 가짐.

- 슝안신구는 베이징과 톈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각각 105㎞ 떨어져 있으며, 허베이성 성도(省都)이자 최대 산업도시인 스자좡(石家庄)과 바오딩(保定)시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각각 155㎞, 30㎞ 떨어진 거리에 위치

○ 2019년 운영 개시 예정인 베이징 신(新)공항과는 약 55㎞ 거리에 위치

---

1) 국가급 신구는 국가발전전략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국무원의 비준이 필요하며,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19곳 지정.

2) 슝안신구는 현행 행정구역상 바오딩시 가오양현(高阳县)과 창저우시(沧州市), 런치우시(任丘市)를 포함.

3) 국가급 신구 중 파급효과가 전국 범위에 해당하여 비교적 위상이 높은 지역을 의미.

■ [지역개발전략] 슝안신구의 개발은 '징진지 협동발전전략(京津冀协同发展战略)[4]'의 지역개발, 전국 주요 경제권 간 균형 발전 및 질적 발전(高质量发展)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추진됨.

-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지역은 베이징, 톈진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허베이와의 발전 격차가 큰 편으로,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슝안신구 개발을 추진
- 베이징은 중국의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의 4대 중심이며,[5] 수도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비(非)수도 기능을 슝안신구로 이전 예정[6]
- 또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화베이(华北) 지역은 주강(珠江)경제권과 장강(长江)경제권에 이어 중국 내 3대 경제권으로 불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편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
- 슝안신구는 혁신, 스마트, 녹색을 테마로 개발속도가 아닌 질적 수준 제고를 지향

2. 추진 현황

■ 지난 1년간 슝안신구 규획 수립 및 이행 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어 왔으며, 마침내 2018년 4월에 국무원이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7]」을 비준함.

- 2014년 2월 「징진지 협동발전전략」 수립 이후 슝안신구 설립에 대한 내부검토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부터 건설이 본격 추진됨.
- 2017년 6월 허베이 슝안신구 관리위원회, 7월 슝안건설투자그룹을 설립하여 슝안신구 건설 과정에 필요한 투자유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또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关村)과 공동으로 슝안신구에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발표
- 2018년 2월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슝안품질(雄安质量)'[8]에 대해 언급하면서,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에 개발 속도보다 질이 더욱 강조됨.

---

4)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을 의미.

5) 「베이징 도시종합규획(北京城市总体规划(2016-2035))」.

6) 비수도기능은 오염 유발 제조업과 유통시설, 서비스업 등 저부가가치 분야가 주로 거론되어왔으나 슝안신구 규획 발표 이후 교육, 과학기술 연구, 금융업 등 일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

7) 「河北雄安新区规划纲要」.

8) 수도경제무역대학 양카이충(杨开忠) 부총장은 '슝안품질'은 신(新)시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정책적 목표이며, 중국 경제발전방식이 혁신주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이에 부합하는 주거,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언급.

표 1. 슝안신구 추진 관련 주요 연혁

시기	연혁
2017. 4.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슝안신구 건설 규획 발표 - 국무원 슝안신구 건설 비준
2017. 6.	- 허베이 슝안신구 관리위원회(河北雄安新区管理委员会) 설립 비준 - 슝안신구 내 중관춘 과학기술원(中关村科技园) 설립 발표
2017. 7.	- 중국 슝안건설투자그룹(中国雄安建设集团) 설립(등록자본 100억 위안 규모)
2017. 10.	- 허베이 슝안신구(河北雄安新区)가 허베이성 바오딩시로부터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
2018. 2.	- 시진핑 총서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슝안품질(雄安质量)'을 창조할 것을 요구 - 베이징-슝안신구 간 고속철도 건설 착공(2019년 9월 개통 예정)
2018. 3.	- 슝안신구 건설투자그룹의 자회사 '슝안그룹 인프라건설(中国雄安集团基础建设有限公司)', '슝안그룹 투자관리(中国雄安集团投资管理有限公司)', '슝안그룹 공공서비스(中国雄安集团公共服务管理有限公司)' 설립 - 슝안대학 설립 발표[9]
2018. 4.	- 중국 국무원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 비준

자료: 저자 정리.

■ 슝안신구 규획 발표 이후 1년간 100여 개가 넘는 기업 투자가 진행되었음.

- 초기에는 중국건축, 중국교통건설그룹, 차이나텔레콤, 건설은행 등 건설, 통신, 금융 분야의 국유기업 진출 비중이 높았음.
-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국유기업 투자에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우려를 해소

표 2. 슝안신구 투자 및 진출 기업 현황

분류		투자 및 진출 기업
중앙 국유 기업	인프라	중국건축, 중국교통건설그룹, 중국교통항공국, 중핵공업, 중국전력건설 등
	통신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금융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IT		바이두(百度), 알리바바(阿里巴巴), 텐센트(腾讯), 360, 징둥(京东) 등
제조업		바오스주식(宝硕股份), 바오비엔전기(宝变电气), 쥐리쑤어쥐(巨力索具), 중국동력(中国动力), 창청 자동차(长城汽车), 링윈주식(凌云股份), 러카이 신소재(乐凯新材), 스통신소재(四通新材)
부동산		징한주식(京汉股份), 랑팡발전(廊坊发展), 화샤싱푸(华夏幸福), 뤼디그룹(绿地集团)
인프라		지동시멘트(冀东水泥), 진위주식(金隅股份), 허베이철강(河钢股份), 신흥파이프(新兴铸管), 쇼우강(首钢股份), 허베이이공(河北宜工), 탕산항(唐山港), 텐예통롄(天业通联), 싼이중공업(三一重工), 톈진항(天津港), 화베이고속(华北高速)
환경		추잉농목(雏鹰农牧), 장친그룹(长青集团), 셴허환경(先河环保)

자료: 저자 정리.

9) 허베이성 내의 허베이대학(河北大学), 옌산대학(燕山大学), 허베이 의과대학(河北医科大学), 허베이 농업대학(河北农业大学) 등을 통합.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다수의 IT 기업들은 스마트시티 건설 참여를 위해 슝안신구 투자 계획을 발표

-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
  - ○ 바이두는 슝안신구에서 자율주행 운행 추진을 위해 포드, 다임러그룹 등 주요 자동차 기업 및 인텔, 엔비디아 등과 공동으로 연구 진행[10)]
  - ○ 알리바바는 알리클라우드, 알리페이, 앤트파이낸셜 등 계열사를 통해 슝안신구 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예정
  - ○ 텐센트는 슝안신구 위원회와 전략적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핀테크와 의료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모색
- 기술력 홍보 및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슝안신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곳에 입주할 국책연구기관의 협업 가능성도 존재

표 3. 중국 주요 IT 기업의 슝안신구 투자 및 진출 현황

업체	일자	진출 분야	주요 내용
바이두	2017. 12.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량 등	전략적 협력 MOU 체결, 자율주행 공동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참여
알리바바	2017. 11.	사물인터넷, 스마트 물류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각 분야별 자회사 설립 및 인프라 구축 참여
텐센트	2017. 11.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지역 내 점포 무인결제 시스템 등	전략적 협력 MOU 체결 및 핀테크, 의료 분야 협력 강화
징둥(京东)	2017. 12.	스마트 물류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금융 부문 자회사 2곳 설립
진샨소프트(金山软件)	2018. 1.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중관춘 혁신산업단지 설립

자료: 각종 언론기사 종합.

■ 슝안신구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인재 중심의 혁신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을 유치하고 있음(표 4 참고).

- 슝안신구에는 허베이성 내 주요 대학을 통합한 슝안대학이 설립될 예정이며, 그밖에 베이징대, 칭화대 등 중국내 주요 대학도 참여할 예정
  - ○ 베이징대는 의학센터 및 경영대학원 등을 설립하고, 칭화대는 경영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
- 인민대학은 중국 중의과학원과 공동으로 국가의학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중국미디어대학(中国

10) 「中, 세계 첫 '자율주행차 전용 도시' 만든다」(2018), 『한국경제』. (5월 21일)

传媒大学)은 슝안신구 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 그밖에 다수의 베이징 소재 대학이 기관 이전 및 분교 신설을 추진 중

표 4. 슝안신구 설립 예정 대학

대학명	설립 내용 및 방식
슝안대학	허베이성 내 대학 통합
베이징대학	의학센터, 경영대학원 연수센터 설립
칭화대학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인민대학	중국 중의과학원과 공동으로 중의학 위주의 국가의학학원 설립
중국임업대학	슝안신구 분교 설립
중국농업대학	생명과학대학 설립
중국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이전
중국미디어대학(中国传媒大学)	슝안신구 발전연구원 설립
베이징사범대학	교육, 문화, 생태환경, 건강 등의 영역에서 허베이성과 전략적 협력
허베이공업대학(河北工业大学)	미국 애리조나대학과 공동으로 분교 설립

자료: 언론기사 종합.

3. 향후 계획

■ 슝안신구 개발은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 추진되며, 3단계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임(표 5 참고).

- 2020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는 베이징의 과밀 기능 이전 및 정착에 중점을 두며, 각종 인프라 건설에 집중
- 이어 2027년까지는 슝안신구 내 인프라 건설을 완성하고, 기업들의 혁신과 창업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해나갈 예정
- 2035년까지 '저탄소 녹색도시', '스마트시티', '살기 좋은 도시' 등 도시 경쟁력 강화 추진

표 5. 슝안신구 단계별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구분	시기	개발면적	주요 목표
1단계	2017~20년	약 100㎢	비수도 기능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2단계	2022~27년	약 200㎢	초기 개발구역의 기초 인프라 건설 완성, 신도시의 자생능력 강화
3단계	2027~35년	약 2,000㎢	저탄소 녹색도시, 스마트시티, 살기 좋은 도시 구축

자료: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을 바탕으로 정리.

■ [도시 간 접근성 강화] 슝안신구는 베이징과 인근 주요 도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시 간 철도(城际铁路)[11] 및 도로 건설 등 교통허브 계획 수립

- 도시 간 철도 건설에 따라 베이징 신공항까지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징과 톈진까지 각각 30분, 스자좡까지는 1시간 내 도착 가능

○ 2018년 2월 베이징-슝안신구 구간(연장 92.4㎞)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335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

- 슝안신구를 중심으로 '베이징-슝안선', '톈진-슝안선' 등 주요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인프라 확충 추진

○ 슝안신구에는 4개의 고속도로와 1개의 국도가 연결되며, 수도공항과의 연결도로 건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

그림 2. 슝안신구 철도교통 계획

자료: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

그림 3. 슝안신구 고속도로 계획

자료: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

■ [공간구조] 슝안신구 1기 개발은 '도심지역(一主)' 및 주변 '5대 지역중심(五轴)', '다결절(多节点)'의 공간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콘셉트의 도시개발을 추진 중임(그림 4, 5 참고).

- 1기 개발구역은 북부 시가화구역, 중부 중심구역, 남부 수변구역으로 구성되며, 그중 룽청현(容城县)과 안신현(安新县)의 경계지역이 주도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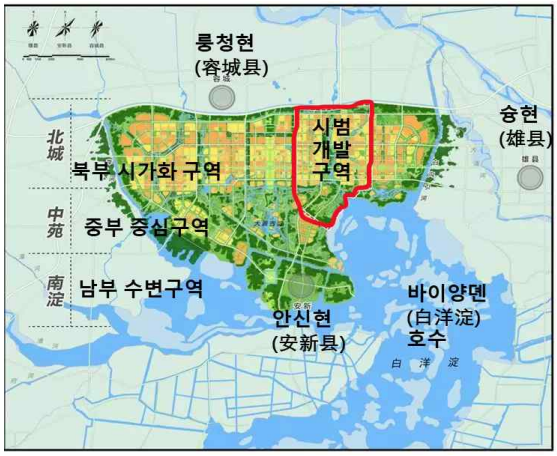
○ 1기 개발구역 내 룽청현 동쪽 일부 구역을 시범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초 인프라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음.

- '5대 지역중심'은 슝현(雄县), 룽청현, 안신현, 사이리(赛里) 및 잔강(昝岗)이며, '다결절'은 슝안신구 외곽지역의 특색마을(特色小镇)을 의미

11) 「징진지 일체화 규획」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 내 철도교통의 위계는 고속철도(高铁), 도시 간 철도(城际铁路), 교외선 철도(城郊线铁路), 내부순환철도(城内轨道) 등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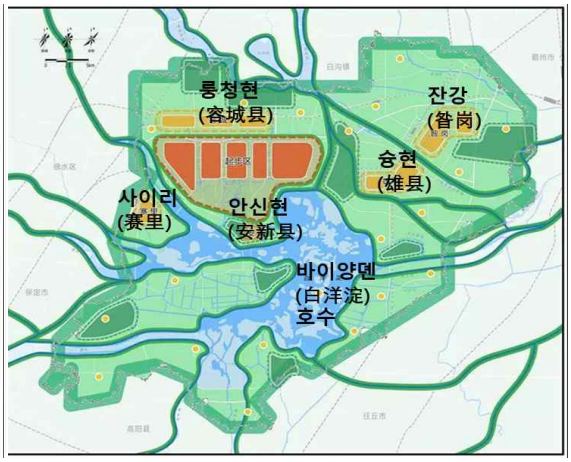
○ 지역중심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심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외곽을 녹지로 조성

그림 4. 슝안신구 1기 개발구역 계획



자료:「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

그림 5. 슝안신구 1기 개발구역 내 생활권 계획



자료:「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

■ [생활환경] 슝안신구를 관통하는 바이양뎬호(白洋淀湖) 일대를 국가 삼림공원으로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기준 등 일부 제한

- 바이양뎬호(白洋淀湖) 주변에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생태관광 및 거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
  - ○ 규획구역 내 습지 및 녹지 비율을 총 계획면적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
  - ○ 대형 야생 생태공원, 종합공원 및 도심지역 내 마을공원 건립 추진
- 슝안신구 건설용지 비율을 총 규획면적의 30% 수준인 약 530㎢ 규모로 제한하고, 경작지 비율은 총 규획면적의 18% 수준으로 유지
- 슝안신구 인구밀도를 베이징 도심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1만 명/㎢ 이하로 유지해 인구과밀 제한

■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슝안신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되며, 향후 중국 내 스마트시티 건설의 시범모델로 삼고자 함.

- 슝안신구 규획에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확충 외에도 대중교통 시스템에 무인 자율주행차량 기술 적용, 지열발전 및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무인점포 등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추진 내용이 포함.

■ [산업계획] 슝안신구는 △차세대 IT △바이오·의약 △군민융합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등 신산업 유치에

주력할 것이며, 미래전략산업 육성 계획에 양자통신, 블록체인 등을 포함시킴.

- 차세대 IT 분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분야가 포함됨.
- 바이오 분야는 신약개발, 유전자 공학 등이, 군민융합 분야는 첨단 전자소재, 위성통신항법장치 등이,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는 산업디자인이 포함됨.
- 양자통신, 블록체인, 미래네트워크, 뇌과학 등이 미래전략산업에 포함

표 6. 슝안신구 산업육성 계획

구분	산업 분야	업종
주력유치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모바일
	바이오	신약개발, 유전자공학, 고급의료설비 연구개발
	군민융합	첨단 전자소재, 위성통신항법장치, 정보보안, 스마트로봇, 고급신재료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디자인
미래전략 육성 산업	양자통신, 블록체인, 미래네트워크, 뇌과학 연구, 중증질환 관련 신약개발, 간세포 치료 및 재생의학, 나노재료과학, 그래핀, 극한환경소재, 액체금속, 3D 프린팅 등	

자료: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을 바탕으로 정리.

■ [인재 유치정책] 슝안신구는 △인센티브 제공 △우수한 연구환경 조성 △우수한 정주생활 여건 제공을 바탕으로 인재 유치를 추진[12)]

- 슝안신구는 입주 기업과 기관에 박사후(Post-Doc) 과정 운영 허가, 귀국 유학생 대상 창업지원센터 운영,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조건 대폭 완화 등을 추진
  - ○ 슝안신구는 외국인 인재 유치 및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칭화대, 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환경 조성
  - ○ 대학 및 과학기술연구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고급 서비스업, 과학기술산업, 과학기술 인큐베이팅센터 등 6대 영역 중심으로 이전 예정
- 안정적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제도 및 별도의 대입제도 운용
  - ○ 슝안신구 입주 기업의 임직원 및 가족에게 거주증 발급 및 장기임대주택 제공, 은퇴 이후에도 실버타운 입주 및 이주비 지급 등 혜택 부여
  - ○ 대학 입학시험에서 슝안신구에 지역 쿼터를 별도로 할당할 예정

12) 수도경제무역대학 양카이충(杨开忠) 부총장은 슝안신구 인재 유치정책을 연구 인프라 구축과 최고급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고 언급.

4. 평가 및 전망

■ 중국은 과거 특정지역 개발에서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였으나 슝안신구 개발 과정에서는 질적 수준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중국 지역과학협회의 샤오진청(肖金成) 박사는 "슝안신구는 속도가 아닌 슝안품질(雄安质量)을 강조하고 있으며, 계획 추진에서도 과학적이고 조급하지 않다(不操之过急)"고 평가
- 인민대학 양홍산(杨宏山) 교수도 "슝안신구 건설이 정부주도 아래 단계적으로 차분히 추진되고 있으며, 대학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당초에 국유기업과 대학 부설 연구소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와 참여도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슝안신구 건설 추진 1년간 이를 지원하는 각종 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며, 베이징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이전을 추진함.

- 국무원은 2018년 4월 「허베이성 슝안신구 규획」을 정식 비준하였으며, 슝안신구에 도시개발 관련 분야의 경험 및 노하우, 정책적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을 이끈 쉬캉디(徐匡迪) 전 상하이 시장을 슝안신구 건설 총책임자로 임명함.

- 슝안신구 관리위원회는 베이징 중관춘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슝안신구에 혁신산업 중심의 과학기술단지 설립을 추진 중임.

■ 향후 베이징의 연구개발 및 교육 등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 베이징의 과밀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징진지 지역의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평가됨.

- 수도경제무역대학 양카이충(杨开忠) 부총장은 슝안신구가 베이징, 톈진, 스자좡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중앙국유기업 이전 등으로 인해 징진지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또한 징진지 지역의 교육, 의료, 주거 등 분야의 격차가 매우 심한 편이나, 슝안신구가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서비스와 별도의 대학입학시험 쿼터 운영은 지역 인재를 유치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

- 베이징대 수도발전연구원 리궈핑(李国平) 원장은 "도심 집중도가 높은 대도시권 내에 부도심을 건설하는 것은 도시군(城市群) 발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균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슝안신구가 향후 징진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슝안신구는 외부적 요소 유입을 통한 성장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선전, 항저우(杭州), 샤먼(厦门), 구이양(贵阳) 등 IT 산업을 통한 혁신을 추구하는 도시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음.

- 슝안신구가 강력한 정책적 지원만으로 과연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형 혁신 중심도시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유보적 평가도 존재

■ 슝안신구가 추구하는 친환경, 첨단 스마트시티, 인재중심형 혁신도시 등의 목표는 중국의 신(新)시대 이념과 부합하며, 향후 중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대표사례가 될 전망임.

- 슝안신구는 생활권 녹지 비율을 높이고, 도시 문제의 90%를 빅데이터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전망

○ 슝안신구는 GDP 내 디지털경제 비중이 80%에 달할 전망임.

- 화타이(华泰)증권은 향후 20년간 슝안신구에 대한 투자규모가 2조 4,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GDP가 최대 0.3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通过新型住房保障体系留住雄安人才」. 2018.『房天下』. (5月 3日)
「雄安新区建设智慧城市新标杆 那些雄安新区概念股受关注」. 2018.『房天下』. (5月 3日)
「高教副局两条腿走路 雄安新区将构建世界一流教育体系」. 2018.『21世纪经济报』. (4月 24日)
「河北支持以雄安为核心建自贸区、专家称高端服务业将有大突破」. 2018.『澎湃新闻』. (4月 23日)
「把握雄安新区建设高质量发展样板的逻辑」. 2018.『新浪网』. (4月 22日)
「权威解读！ 雄安新区未来是啥样？一目了然！」. 2018.『新浪网』. (4月 21日)
「从规划亮点看雄安“未来之城”--解读《河北雄安新区规划纲要》之一」. 2018.『新浪网』. (4月 21日)
「雄安新区规划呼之欲出 四个高端高新产业先行」. 2018.『凤凰网经济』. (4月 10日)
「百度无人车“开进”雄安新区」. 2017.『新京报』. (12月 20日)
「雄安新区如何建设」. 2017.『新京报』. (11月 17日)
「阿里签约雄安新区 打造未来“在线”城市」. 2017.『新京报』. (11月 9日)
「雄安新区就业者攒够积分可买房」. 2017.『新京报』. (9月 21日)
「雄安新区‘新’在哪儿？」. 2017.『新京报』. (7月 9日)
「北京将引导人口随功能疏解有序向雄安新区转移」. 2017.『新京报』. (6月 9日)
「北大、北师大、北理工等多校对接雄安新区」. 2017.『新浪综合』. (5月 13日)

「中国传媒大学雄安新区发展研究院揭牌 范周任院长」. 2017.『中国新闻网』. (4月 24日)
「六问雄安新区」. 2017.『新京报』. (4月 3日)
「雄安新区 北京清华大学或首先迁入」. 2017.『联合早报』. (4月 2日)
「中央、国务院决定设立河北雄安新区」. 2017.『新京报』. (4月 2日)
「浦东为何不叫特区叫新区」. 2016.『浦东新区政府网』. (9月 11日)
瞭望. 2018.「雄安新区一年建设评点」. 总第1779期. (4月 9日)

자료 정리: 북경대학교 지역경제학과 박사과정 유광철(yookwang1234@naver.com)